

# 오늘재보선 호남표 향배는? '공들인' 김종인·이낙연 누가 웃나

## 호남출신 수도권 유권자, 선거 결정적 역할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여·야 총력전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호남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공을 들인 수도권 호남 출신 유권자의 표심 향배가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을데다,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거 결과에 따라 같은 호남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6일 여·야와 호남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서울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호남 출신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여·야가 '호남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그동안 수도권의 민심은 호남의 정서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을 총동원해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정서가 수도권으로 옮겨주기를 바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호남 겨안기' 전략으로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지난해 전례없이 5·18 국립묘지 무릎사과 이후 지역구에 현역 국회의원을 배치하는 '제2지역구 갖기' 행보에 이어, 비례대표위원의 호남 출신 전진 배치 당론 결정 등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아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하루 뒤인 지난달 24일 다시 5·18국립묘지 찾았고 5·18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에맞서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주소지를 둔 연구자 찾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지인에게 사전투표나 분투표를 전하나 문자로



박영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집중유세에 앞서 이낙연(왼쪽)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과 손을 잡고 있다.

독려하고 실태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당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양 당의 '열린 전'에 대한 성격표가 벌써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양당 지도부의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있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대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김종인 위원장의 공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궐선거 승리 결과를 지렛대로 내년 대선까지 분위

기를 몰고 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거취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불모지인 호남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뿌려 놓은 씨앗을 바탕으로 내년 대선에 두자릿수 득표율을 노릴 것으로 보이며 대선 승리로 이어진다면 김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김메이커'가 된다.

반면 다수의 전문가가 민주당의 열세를 예상하고 있어 막판 뒤집기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예상대로 여당이 패배할 경우 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에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선주자 중 한명인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보선 이후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본격 대선 행보로 인해 여론의 대선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서울·부산시장 보선 중 한 곳이라도 여론이 승리한다면 최대 수혜자가 이낙연 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의 반전도 점쳐진다.

이번 재보선결과가 대선까지 이어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4·7재보선 결과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대로 여당이 패배할 경우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책임론에 따른 대권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김종인위원장에 가장 큰 공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 김희재, 도심공간 효율적 개발 위한 도로공간 입체개발 제정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은 최근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도시권에서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도로 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공간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공간

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제한의 완화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제정안에 담았다.

김희재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주거문제, 그리고 교통정체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도로공간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도로공간 입체개발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공원 조성, 건물 건축 등을 통해 기존 낭비공간을 보다 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

## 文대통령 '도쿄 구상' 무산 위기...한반도 평화 구상 차질 우려

### 北 체육성, 도쿄올림픽 불참 공식화... '코로나 우려 명분'

### 도쿄 구상, 평창 구상 시점2...올림픽 계기 한반도 외교전

도쿄올림픽을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 비핵화 대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무산됐다. 북한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하계올림픽에 불참을 공식 선언하면서 임기 말 대북 접근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체육성은 6일 공식 운영협회 이지 '조선체육'을 통해 지난달 25일 개최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총회 결과와 관련해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

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선수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명분으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하면서 문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도 줄어들게 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최종 수립 시점을 전후로 본격 추진을 계획했던 이른바 '도쿄 구상'에 급제동이 걸린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도쿄 구상'은 평창동

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토대로 도쿄·북경 올림픽을 지렛대 삼아 비핵화 대화 재개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계기로 시작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 3년 전 평화 분위기를 재현하겠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

2·28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정으로 힘을 잃었던 평창 구상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되살리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도쿄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한반도를 위한 평화를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

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과정에서 북미 비핵화 대화의 촉진 방안을 일함으로 종선전언과 함께 문 대통령의 '도쿄 구상'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서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완료 후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방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도쿄올림픽 활용 구상안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